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4 pp. 1594-1602, 2012

http://dx.doi.org/10.5762/KAIS.2012.13.4.1594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연구

김순태[1*], 민경명[1], 오상영[2]
[1]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2]영동대학교 경영학과

A Study on the Governmental Policy' Loan of Small Business

Soontae Kim[1*], Kyungmyung Min[1] and Sangyoung Oh[2]
[1]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Information Departm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ungdong University

요 약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지원 자금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변화, 향후 성장성을 분석하였다. 정부자금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수혜기업 중심으로 지원 자금의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자금 지원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has focused on analyzing the changes of increasing sales and potential growth by different scales of support with funds through effect analysis on governmental policy loan. It provided significant findings for the further governmental policy loan since it conducted the performance analysis of different business respectively, which included business with the governmental policy loan and ones without any loan.

Key Words : Governmental policy loan,ones without any loan, Effect analysi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성장성 등 경영활동의 성패는 대부분 국가 경제의 발전 여부 및 외부 경제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악화되어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소상공인의 경우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지원의 이유는 대·중소기업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경제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를 극복하고 지역기반경제의 역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지원 자금규모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지원자금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매년 2,000억원~4,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 효과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지원과 정책자금의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2. 선행 이론 연구

2.1 소상공인 경기 동향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특별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이라 함은

*Corresponding Author : Soontae Kim
Tel: +82-10-6434-6301 email: ds4caf@smba.go.kr
접수일 12년 03월 22일 수정일 12년 04월 11일 게재확정일 12년 04월 12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의되어져 있다. 소상공인 추이[1,2] 를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는 IMF 직후 조기퇴직 및 기업도산 등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으로 생계형 창업이 급증한 이래, '99년 이후 '09년까지는 소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2 소상공인 경기 동향

가.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3]

생계형 서비스산업은 음식, 숙박, 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 경쟁 시장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을 총괄하여 지칭한다.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특징은 영세성, 업황의 국내경기 민감성, 높은 고용흡수력, 높은 경쟁강도와 저마진 구조, 경영역량의 취약, 기업가정신부족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져판매부진과 소득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현황[4]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99년부터 시행돼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5] 은 1999년 3,000억원을 시작하여 2011년 4,45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다. 소상공인 경영실적 동향

2010년도 1/4분기 소상공인 관련 주요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499만원이며 순이익은 322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경기동향(BSI)추세에 따라 분석해 보면 그 전년도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전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6]

라. 소상공인 정책 방향

소상공인은 해마다 약간의 성장과 함께 영업 상황에 대한 긍정적 체감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적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비효율과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책 자금의 과잉화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지원대상의 차별화, 실효성 분석을 통한 효율적 정부지원, 소상공인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7]

3.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및 성과분석

3.1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3.1.1 조사의 설계

본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변수와 유관기관의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첨가하여 측정 변수를 구성하였다. 측정의 대상은 정부지원자금의 수혜업체 500개, 비수혜업체 500개의 소상공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이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를 상호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은 별도로 하였다.

3.1.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의 수집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제공한 기업정보를 토대로 팩스,전화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전체조사는

[표 1] 설문지 설계
[Table 1] Overall designing questionnaire

구 분		정책자금 수혜업체	정책자금 비수혜업체
조사대상		'1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 중 표본추출 조사(500개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수혜업체 중 표본추출 조사(500개업체)
조사내용	일반현황	업체명, 소재지, 창업연도, 업종, 종사자수, 월평균 매출액, 자금 용도, 정책자금 수혜 금액, 정책자금 필요금액(비수혜업체)	
	정책자금 관련	당해연도 매출변화, 차기년도 매출변화예상, 사업성장성, 정책자금 규모 및 적정성, 정책자금 지원시점, 차기년도 필요 자금규모, 지원금액 상환계획, 자금 지원 시 절차상 만족도, 차기년도 경영환경, 복권기금 인지여부 등	당해연도 매출변화, 차기년도 매출변화예상, 사업 성장성, 정책자금 필요성, 정책자금 신청경험(3년간), 정책자금 지원 못받은 이유, 차기년도 경영환경, 복권기금 인지여부 등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유효설문은 수혜업체 465개, 비수혜업체 451개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는 2011년 9월9일부터 10월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량(업체수,기초통계량,교차분석), 집단간 평균분석(t-test),상관분석,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표 2] 설문조사 항목의 구성
[Table 2] Specifying the survey items

구 분		항 목		척 도
일반 현황	(비)수혜업체 공통	소재지		명목
		창업연도		비율
		자금용도		명목
		종사자 수	상시	비율
			비상시	비율
		2011 매출액(월)		비율
		2012 필요자금(연)		비율
	수혜업체(추가)	수혜자금규모		비율
인식 조사	(비)수혜업체 공통	2011 매출액 변화		구간
		2012 매출액 변화 예상		구간
		사업성장성 예측		구간
		2012 사업 고민		명목
		복권기금 인식도		구간
	수혜업체(추가)	자금소요 충분성		구간
		지원 시점 적설성		구간
		대출상환계획		구간
		만족도	자금규모	구간
			대출절차	구간
			소요기간	구간
			서류준비	구간
			대출조건	구간
	비수혜업체(추가)	정부자금 필요성		구간
		정부자금 신청경험		명목
		자금 비수혜 사유		명목

3.2 지원 효과분석

3.2.1 표본의 특성

표본의 분석 결과 916개의 전체 기업의 2011년 월평균 매출규모는 약2,800만원으로 나타나 연간 3억3,900원만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었다. 이들 기업이 2012년에 정부자금의 수요 규모는 약 6,400만원으로 나타나 연간 매출의 19% 수준의 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소상공인 업체의 연간 매출액 및 2012년 자금 필요액
[Table 3] Annual profits of small businesses and capital requirement in 2012

구분	업체수	평균(월)	표준편차	연간
2011년 매출액	449	2,827만원	6224.2	3억3,928만원
2012년 자금필요액	459	-	22519.6	6,435만원

기초 업체의 주요 통계량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업체는 212개(29.7%), 충청권 지역의 업체는 124개(17.4%), 경상권 지역의 업체는 147개(20.6%), 전라, 제주권 지역의 업체는 145개(20.3%), 강원권 지역의 업체는 85개(11.9%)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기업의 2011년 매출의 변화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29점(SD=0.860)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매출 변화의 예상은 3.11점(SD=0.630)으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업 성장성은 3.05점(SD=1.034)로 성장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자금 수혜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1.85명, 비상시 근로자는 0.93명으로 나타났으며 비수혜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1.57명, 비상시 근로자는 1.28명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상공인 업체의 근로자는 한 기업 당 상시 2명 미만, 비상시 1명 수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업체의 고용창출 효과는 창업자를 포함하여 한 업체 당 4~5명의 취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소상공인 업체의 상시/비상시 종업원 수
[Table 4]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emporary ones in small business

구분	업체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상시	839	0	50	1.72	2.171
비상시	671	0	30	1.08	2.181

3.2.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설문 구성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분석하였으며 이의 검증을 위해서 SPSS 12.0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5점 척도를 이용한 성과분석 설문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0.605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설문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의 이상으로 설문의 신뢰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분석 방법의 이해를 위해 5점 척도의 응답 값에 따른 분석 등급의 구분을 “10단계”로 표 5와 같이 구분하여 독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표 5] 5점 척도의 해석을 위한 단계 구분
[Table 5] 5-point scale step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distinction

단계 구분	응답 점수 구간	만족도 구분
1단계	1.0 ~ 1.4	매우 불만족
2단계	1.4 ~ 1.8	
3단계	1.8 ~ 2.2	불만족
4단계	2.2 ~ 2.6	

단계 구분	응답 점수 구간	만족도 구분
5단계	2.6 ~ 3.0	보통
6단계	3.0 ~ 3.4	
7단계	3.4 ~ 3.8	만족
8단계	3.8 ~ 4.2	
9단계	4.2 ~ 4.6	매우 만족
10단계	4.6 ~ 5.0	

3.3 성장성 분석

3.3.1 만족도 분석 결과

가. 2012년 사업 불안 요인의 분석 결과는 보면 경기불황(21.8%), 대출상환 및 이자 부담(4.8%), 임대료(0.5%), 신규경쟁자(5.1%) 등이 불안 요소를 안고 있으며 가장 불안한 요인은 “고객 및 시장의 감소(47.7%)”로 분석되었다.

나. 수혜업체의 자금 소요 충분성은 2.89점으로 5단계로 나타나 충분하지 못하여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지원 자금의 규모의 만족도는 3.38점, 6단계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지원 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규모면에서 다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혜업체의 정부자금 지원 만족도 약 3.45점, 7단계로 모든 항목(지원 시점, 절차, 소요기간, 구비조건, 대출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수혜기업의 대출 절차, 구비조건, 대출 조건 등 모든 분야에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소요기간(‘대출 실행 일자-최초 대출 상담일까지 기간’)의 응답자 평균값은 26.3일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3.3.2 성장성 분석 결과

가. 수혜업체의 내년 매출변화 및 성장성은 약 3.1점(6단계)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1년의 전년도 대비 매출액의 변화는 3.46점(7단계)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매출액 변화 예상 점수는 3.09점(6단계)으로 2011년에 비해 낮은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업 성장성의 예상 점수는 2.98점으로 보통 수준에서 약간 낮은 5단계로 소상공인 업체의 성장성이 둔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정부지원 자금의 상환계획은 3.11점, 6단계로 부채상환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판단에 주요한 지표 값으로서 소상공인 업체의 부채 상환계획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다. 비수혜업체의 내년 매출변화는 약 3.1점, 6단계로 다소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며, 성장성은 2010년 수혜업체보다 높은 성장(3.12점, 6단계)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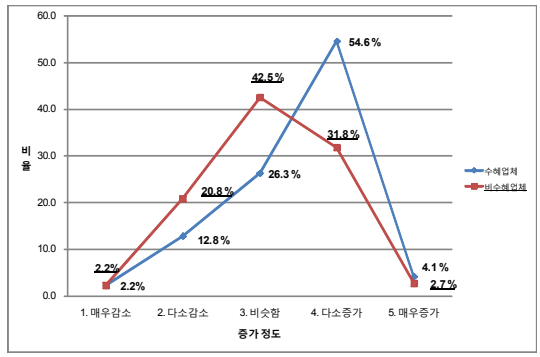
라. 비수혜업체의 정부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3.98점, 8단계로 매우 높아 정부자금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정부 지원자금의 80%이상이 운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성장 중심의 투입보다는 운영 관리에 투입되는 비율이 높아 소상공인 업체의 지속 성장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분석되었다. 비수혜업체도 정부 지원자금의 수요처가 73.2%가 운영자금 명목인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업체가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자금사용 용도 분석 결과
[Table 6] An analysis of fund usage

구분	항목	수혜업체		비수혜업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금 사용 용도	1. 운영자금	358	84.4	150	73.2
	2. 사업장확장	29	6.8	21	10.2
	3. 시설장비구입	20	4.7	27	13.2
	4. 자재물품구매	14	3.4	5	2.4
	5. 신규사업확장	3	.7	2	1.0
	합계	424	100.0	205	100.0

바. 2011년 매출 변화의 분석결과를 보면 정부자금 수혜업체의 매출 증가(58.7%)가 비수혜업체(34.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자금 수혜업체의 매출 증가업체가 24.3% 우위를 보이는 것은 정부 지원자금의 확대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수혜업체 중 매출증가업체수/응답업체수 *100－비수혜업체 중 매출증가업체수/응답업체수 *100)



[그림 1] 2011년 매출 변화 그래프
[Fig. 1] The graph of sale changes

3.3.3 평균분석 결과

가. 정부자금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 집단 간 2011년 매출 차이 분석(t-test)을 한 결과 통계적 결과에 대한 유의성(p-value=0.0)이 높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따라서 수혜업체의 매출이 높은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향후 성장 예측은 비수혜업체가 더 높을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평균 검정결과 유의성(p-value=0.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향후 전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함을 알 수 있다.

[표 7] 2011년 매출변화, 향후 매출 및 성장성 전망 t검정 결과

[Table 7] The sale changes in 2011, t-test results of future profits and growth prospects

구분	검 정 값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수혜구분	94.6	994	.000	1.50	1.47	1.53
'11년 매출변화	112.0	968	.000	3.11	3.06	3.17
'12년 매출예상	154.7	958	.000	3.10	3.06	3.14
성장성 예측	90.80	952	.000	3.04	2.98	3.11

나. 비수혜업체 중 정부자금을 신청한 업체와 미신청한 업체 간의 2011년 매출액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보면 유의확율(p-value=0.39)이 높아 정부자금신청 경험에 따라 매출액의 차이를 규명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집단의 매출액 평균은 경험이 없는 집단의 매출액이 높지만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분석된다.

3.3.4 상관분석 결과

가. 소상공인 업체는 정부지원자금의 수혜와 관계없이 2011년 매출이 높을수록 2012년 매출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매출변화에 따른 2012년 매출변화 예측 상관도가 r=0.432 (p-value<0.01)로 나타났으며, 향후 성장성 예측도 상관성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소요자금 규모도 약한 상관성을 보여 2011년 매출상승업체가 소요자금 규모도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2011년 매출변화에 따른 향후 변화 요소 간 상관 분석 결과

[Table 8] The co-relation analysis on elements causing changes in the future based on sale changes in 2011

구분		'12년 매출변화 예측	성장성 예측	소요 자금규모
'11년 매출변화	r	.432(**)	.293(**)	.105(*)
	p값	.000	.000	.023
	업체수	959	951	470

** p-value < 0.01(양쪽), * p-value < 0.05(양쪽)

나. 2011년 매출액 대비 2012년 매출액 상관성이 수혜업체보다 비수혜업체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비수혜업체가 2011년 매출액 변화에 대응하여 2012년 매출액 변화 및 성장성이 수혜업체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2011년 매출변화에 따른 2012년 매출변화 및 사업 성장성 상관성 분석

[Table 9] The correlation analysis of potential growth based on the expected sale changes in 2012 and those in 2011

구분		수혜업체			비수혜업체		
		A	B	C	A	B	C
'11 매출 변화(A)	r	1	.408(**)	.251(**)	1	.464(**)	361(**)
	p값	-	.000	.000	-	.000	.000
	업체	479	471	462	490	488	489
'12 매출 예상(B)	r	.408(**)	1	.306(**)	.464(**)	1	.443(**)
	p값	.000	-	.000	.000	-	.000
	업체	471	471	460	488	488	487
성장성 예상(C)	r	.251(**)	.306(**)	1	.361(**)	.443(**)	1
	p값	.000	.000	-	.000	.000	-
	업체	462	460	463	489	487	490

** p-value < 0.01(양쪽)

다. 수혜업체의 정부지원 자금규모에 따른 매출변화는 r=0.181로 약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정부의 지원자금 규모에 따라 매출변화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0] 정부지원 자금규모와 매출변화 상관성 분석 결과

[Table 10]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government-supported funding scales and sale changes

구분		매출	수혜
수혜	r	.181(**)	1
	p값	.004	-
	업체	253	438

** p-value < 0.01(양쪽)

라. 수혜업체의 자금지원 절차의 만족에 따른 소요기간, 서류제출 조건, 대출조건의 만족도와 상관성 분석을 한 결과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자금 지원 시 진행되는 절차, 소요기간, 서류제출 조건, 대출조건 등에 대해 한 가지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모든 조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가지 측정 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0.6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value=0.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자금지원 절차의 만족에 따른 상관성 분석 결과
[Table 11] The correlation analysis of funding procedure satisfaction

구분		소요 기간	서류 조건	대출 조건
절차	r	.757(**)	.719(**)	.653(**)
	p값	.000	.000	.000
	업체	459	458	459

** p-value < 0.01(양쪽)

3.3.5 수혜금액 규모에 따른 매출액의 추정

소상공인 업체의 정부 지원자금의 수혜규모에 따른 매출 증가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r=0.181, p-value< 0.0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 지원자금 규모에 따른 매출액의 회귀식 추정을 한 결과, Y의 절편은 2,740만원이고 X의 기울기는 0.181로 분석되어 다음과 같은 단순회귀식($\hat{Y}= 2740+0.181X_1$)을 도출하였으며 정부지원자금의 규모에 따른 매출액 추정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 정부지원자금 규모에 따른 연간 매출액 추정
[Table 12] The estimated revenue depending on different scales of government-supported funding

구분	지원금 규모 및 추정매출액(단위: 천만원)								
지원금	1	1.5	2	2.5	3	3.5	4	4.5	5
연간 추정매출액	4.9	6.0	7.1	8.2	9.3	10.3	11.4	12.5	13.6

정부지원규모에 따를 소상공인 업체의 연간 매출 추이를 분석해 보면 지원금 규모가 클수록 매출 상승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13] 정부지원자금 규모에 따른 매출액의 추정 검정 결과
[Table 13] The test result of estimated revenue depending on different scales of government-supported funding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740.6	111.0	-	24.69	.000
	매출	.049	.017	.181	2.91	.004

a 종속변수: 수혜금액

3.4 성과분석

3.4.1 성과분석의 조건 및 방법

정책자금에 대한 성과분석은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창출한 성과의 직접적 성과와 국가 경제의 차원에서 기업이 산업 간의 생산 활동 중에 상호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성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자금의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분석을 단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일이다.

산업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업의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 규모, 이를 통해 지출한 비용과 지원 기업이 지불한 인건비, 광고홍보비 등 경상지출의 합계를 통해 가치사슬(Value Chain)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자금을 받은 수혜업체 500개, 정부지원 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수혜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지원 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자금 수혜업체 500개를 통해 통계적 추정에 의해 정부자금 지원 성과를 예측하였다.

가. 성과분석의 결과

1) 정책자금 1억원당 업체의 연평균 매출액 12.6억원으로 추정된다. 2010년 정책자금 지원금액의 평균은 2,938만원으로 정부지원 수혜업체의 연평균 매출금액을 추정해보면 정부지원금 1억원당 12.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60,000 = 3.7 / 0.294 * 10,000), 단위:만원]
2) 정책자금 수혜업체(평균 2,938만원)이 비수혜업체보다 매출액 증가가 연평균 7,527만원 높기 때문에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액은 2억5,61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입단위 당 '09년 0.8배, /10년 0.55배[8]]

[표 14] 정책자금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의 매출 차이
[Table 14] The sales gap of governmental policy loan and ones without any loan

구분 (단위:만원)	도수	수혜업체		비수혜업체	
		월평균	연평균	월평균	연평균
매출	268	3,080	36,963	2,453	29,437
지원금액	432	2,938	-		
유효수	287	159		128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은 5조4,000억이 추정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4,300억원, 2011년)에 따른 정부지원 수혜 소상공인 업체의 연매출은 5조4,000억원(4,300억원*12.58억원)으로 추정된다.

4) 2011년 소상공인 업체의 부가가치의 증가는 1조1,015억원(4,300억원*2억5,616만원)으로 추정된다(투입단위 당 '09년 0.65배, '10년 0.45배[9])

5) 정부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58.7%가 증가하였으며, 비수혜업체보다 24.2%가 높으며, 순증가업체 비율은 16.2%(24.2%-8%)로 분석되었다.

[표 15] 2011년 매출액 변화
[Table 15] The sale changes in 2011

구분	업체수(비율)		비율차이(A-B)
	수혜업체(A)	비수혜업체(B)	
감소업체	69(15.0%)	103(23.0%)	-8%
유지업체	120(26.3%)	190(42.5%)	-16.2%
증가업체	270(58.7%)	154(34.5%)	24.2%
계	459(100%)	447(100%)	-

6) 2011년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의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의 연간 매출액 차이(수혜업체-비수혜업체)는 업체당 1억7,20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16] 2011년 매출액 증감업체별 업체당 매출액 추정 분석
[Table 16] The analysis of estimated revenue depending on the gap between governmental policy loan and ones without any loan

구분	응답 업체당 연매출액추정(만원)		업체당 매출차이
	수혜업체(A)	비수혜업체(B)	(A-B)
감소업체	22,168	26,463	-4,295
유지업체	23,540	24,700	-1,160
증가업체	53,032	35,822	17,210

7) 수혜업체의 매출 증가업체 비율(58.7%)이 전년도 증가업체 비율(32.5%)보다 26.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자금 수혜업체의 매출 증가는 2010년은 32.5%, 2011년은 58.7%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지원자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7] 전년도 대비 매출변화 업체비율 분석
[Table 17] The company ratio analysis of sale changes between 2010 and 2011

구분	2010년		2011년		최근3년 대비 차이	
	수혜 (A10)	비수혜 (B10)	수혜 (A11)	비수혜 (B11)	수혜 (A11-A10)	비수혜 (B11-B10)
비증가업체	67.5%	92.6%	15.0%	23.0%	-52.5%	-69.6%
증가업체	32.5%	7.4%	58.7%	34.5%	26.2.0%	27.1%
계	100%				-	

8) 정부자금 1억원 당 4.84명 취업유발, 2011년도 20,812명 취업증가 추정된다. 2011년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금액은 약 2,938만원이며 업체당 근로자는 업체 사장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85명, 비상시근로자 0.93명으로 평균 1.424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자금 지원금 1억원당 4.84명이 생산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1년 정부지원 자금(4,300억원)을 통한 총고용수는 20,812명으로 추정된다.

[표 18] 업체당 정부지원자금의 평균금액 대비 취업자 수 분석
[Table 18]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employees vs. the government-supported funding average per business

구분		응답업체	평균	표준편차
사장포함 취업자(명)	상시근로자	448	1.846	2.723
	비상시근로자	385	0.9273	2.486
	합계	833	1.421	-
자금지원액(만원)		432	2,938.3	2,638.7

* 정부지원자금 1억원 당 4.84명 취업유발 추정 [(4.84=1.421/2,938×10,000)/단위:만원]

9) 정부자금 지원금액 1억원 중 신규가치발생 금액은 8,470만원(84.7%)이며, 타산업의 직접생산유발 금액은 1,530만원(15.3%)으로 분석되었다(부가가치 규모는 제외). 직접생산유발은 산업간 생산물 순환과정으로 생산부문 간의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거래)하여 나타나는 경제적 부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신규가치발생은 생산활동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윤, 종업원 임금, 금융권에 지불하는 이자 등의 가치로 정의하였다.

[표 19] 정부자금 지원금액의 용도 분석
[Table 19] The usage analysis of government-supported funding

용도	응답수	업체당 평균a (만원)	a 비율(%)	총 지원금b (만원)	b 비율(%)	4,300억원 지원시 활용금액	비 고
1.운영	358	2,958	21.3	1,058,945	84.7	3,642억원	신규가치발생
2.확장	29	2,921	21.1	84,700	6.8	291억원	타 산업 직접생산 유발
3.시설장비	20	3,135	22.6	62,700	5.0	216억원	
4.자재구매	14	2,679	19.3	37,500	3.0	129억원	
5.신규창업	3	2,167	15.6	6,500	0.5	22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총액 4,300억원(2011년 지원총액)을 가정하면 신규가치 창출금액은 3,642억원(84.7%)이며, 타산업의

생산유발 가치는 658억원(15.3%)으로 추정되며 부가가치를 포함한 2011년 소상공인 지원자금(4,300억원)을 통한 매출 추정액은 총 5조4,000억원이므로 신규가치 발생 금액은 4조5,738억원이며, 직접생산유발 금액은 8,262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통한 국민 경제적 측면의 부가가치 생산은 타 산업의 생산유발 가치보다 신규 가치 창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자금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의 가장 큰 효과 차이는 고용과 매출의 증가 현상이다. 다양한 분석 결과 정부지원자금의 효과는 수혜기업의 매출증가와 고용증가와 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소상공인 정책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비수혜기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어 비수혜기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필요로 한다.

소상공인 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반복된 높은 폐업률에서 벗어나 영업의 지속을 유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의 내구성 강화에 있다. 따라서 비수혜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방법, 수혜기업의 지속적 관리, 지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소상공인 육성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1]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Current Status, 2011.

[2]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09 'National Business Survey', 2010.

[3] Lee, B. H., Kang, G. U.,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Micro Start-up Business Industries," the Bank of Korea, 2008.

[4] The Small Business Development Agency, '2011 Small Businesses' Policy Funding Plan', 2010.

[5] Internal Data From the Small Business Development Agency, 2011

[6] The Economic Trend of Small Businesses, The Small Business Development Agency, pp.8, 2010.

[7] Kang, H. H., "An Analysis of the Local Small Businesses' Economic Awareness and Support Policy," Busan Development Institute, An Analysis of Southeastern industry, Vol.2, pp.32-45, 2010.

[8] The Small Business Development Agency, The Result Analysis of Small Businesses' Policy Funding and Reformation Proposal for Increasing Efficiency, 2009.

[9] The Small Business Development Agency, op. cit.

김 순 태(Kim Soon Tae) **[정회원]**

- 1998년 3월 ~ 2000년 2월 : 충북대학교 공학석사
- 2012년 2월 : 충북대학교 박사 수료(경영정보학 전공)
- 2006년 ~ 2007년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
- 2012년 4월 ~ 현재 : 중소기업청 사무관

<관심분야>
중소기업성장발전 패러다임, 정보통신공학 경영컨설팅, 시스템다이내믹스, 소상공인

민 경 명(Kyung-Myung Min) **[정회원]**

- 2000년 2월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석사)
- 2011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박사과정수료)
- 2003년 2월 ~ 2004년 4월 : 충청리뷰 대표이사 발행인
- 2004년 11월 ~ 현재 : 유비컴즈 충북넷 대표이사/발행인

<관심분야>
지식경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 상 영(Sang-Young Oh) **[종신회원]**

- 2001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2010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10년 9월 ~ 현재 : 영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KMS, 혁신이론, e-Biz, BSC, 지혜경영